

큰스님 수행한담

“국민 모두 참선하면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노모품(老耗品) ②

既不受戒 기불수계
又不調財 우불작재
老氣彌滿 노리기갈
思故可速 사고하제

이미 계율도 바로 지키지 않고
재물조차 쌓지 못하면
늙어 파리해져 기운 다하니
옛일 생각한들 어이 미치랴

老如敗葉 노여추엽
何礙鐵錘 하에감복
命疾脫至 명질탈지
亦用後悔 역용후회

늙음은 마치 가을 낙엽 같은것
어찌 더럽기가 누더기 같은가
목숨은 내 달려 죽음이 이르니
후회해 본들 또한 무엇하랴

命欲日夜盡 명욕일야진
及時可勉力 급시가근력
世間無非常 세간체비상

“이 세상은 분명 덧없는 것이다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莫感罪惡中 막혹타명중

목숨은 밤 낮으로 닳아져 가니
때 늦지 않게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분명 덧없는 것이다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當學自然性 당학연의등
自鍊求智慧 자연구지혜
維希勿染汚 이구불염오
執繩觀道地 집촉관도지

마음 밝히는 등불 심지 돌우어
스스로 단련하며 지혜를 구하라
때를 벗겨내어 물들지 않고
꽃물을 잡아 마음자리를 관하라

애신품(愛身品) ①

自愛身者 자애신자
慎護所守 신후호수
希望欲解 희망욕해
學正不寐 학정불매

제 몸을 정말로 아끼거든
부디 삼가서 지킬 것을 지켜라
깨달음을 얻고자 바라거든

바른 법 배우기에 게으르지 말라

為身第一 위신제일
常自勉學 상자면학
利乃傷人 이니농인
不懲則習 불관즉지

무엇보다 제 몸이 제일이니
항상 스스로 배우기에 힘쓰고
이로움으로 남을 가르쳐
게으르지 않으면 지혜 얻는다

學先自正 학선자정
然後正人 연후정인
調身入慧 조신입혜
必選為上 필선위상

먼저 스스로 바른법 배우고
그런 후에 남을 바르게 하라
제 몸 조심히 지혜에 들면
반드시 높은 경지에 이른다

身不能利 신불능리
安能利人 안능리인
心調體正 심조체정

“이 세상은 분명 덧없는 것이다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何願不至 하원불지

제 몸 이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하랴
마음 다잡고 몸을 바꾸면
어떤 원인을 못 이루겠는가

本我所造 본아소조
後我自受 후자자수
為惡自更 위악자경
如剛鐵珠 여강한주

본래 자기가 지은 것
뒤에 자기가 스스로 받나니
악을 행하면 자기를 부수는게
마치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 같다

人不持戒 人不持戒
滋難如藤 滋難如藤
還情極欲 還情極欲
憚行日增 憚行日增

사람이 계율을 수지하지 않으면
저 등 넝쿨이 무성히 뻗어거듯
욕심은 성할대로 성해져서
악한 것 날로 늘어나게 된다

龍眼

도원스님 (파계사 대비암 조실)

이곳 지세는 아홉계곡이 오물이 모였
다가 빠져나가는 형국인데 기운이 새는
것을 것을 막기위해 절이름을 파계사(把
溪寺)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계곡을 잡
는다는 의미입니다. 절이름으로 계곡의
흐름을 붙들어두고 있는셈이지요.

우리 인제에도 그와 비슷한 수의 큰 구
멍들이 있어서 기운이 들어왔다가는 나
가곤 합니다. 예를들면 입으로는 구멍을
짓고 귀로는 삐뚤 것을 들어 본심을 일
으키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헛되이 새는
것이 많으면 무부(無福)의 법을 중독하
기가 어렵게 됩니다. 바로 우리 중생심
안에 파계사라는 마음의 절을 세워 갈무
리를 잘하여 수행에 진척이 있습니다. 마
음속의 파계사는 견(戒)정(定)혜(慧) 삼
학을 잘닦음으로써 세워집니다.

어릴적 수도사로 소풍을 갔다가 관음
전 보살상을 보았는데 웬지 마음이 끌렸
습니다. 짐작할것없는 그리움의 실체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후로도 절에
가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중병이 나서 거의 죽을뻔 한적이 있습니
다. 숨도 안쉬고 맥박도 잡히지 않자 죽
은줄 알고 이불로 툄툄 말아서는 방구석
에 놓아두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말짱히
의식을 회복하고서는 하는말이 “꿈에 수
도사 부처님이 찾아 왔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은사이신 고승스님과는 우연하게도 동
향입니다. 상좌가 없었던 스님은 고향에
들러 속가동생한테 초등학교 졸업생증
을 출가할만한 아이가 있으면 수소문해달라
고 부탁하고는 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내 속가 형님이 부모
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보내게 된겁니
다. 그렇게 해서 15살때 울력 3월삼짇날
파계사로 왔습니다. 저녁공양을 올리고
은사스님이 계시는 성전암으로 올라갔는
데 어찌나 좋게 좋으시던지 마치 부처
님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스님의 명으로
공양간에서 목욕물을 데우는데 편시리
눈물이 똑똑 흘렸지요. 한참 기다려도 방
으로 오지않자 스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는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암
에서 스님을 4년간 시봉하면서 청소년시
절을 보냈는데 스님되는 뒷발을 거기서
닦은셈이지요.

4년째되던 어느날 스님은 “이제부터는
네 나를대로 공부하러 갈때가 됐다”시며
서 “참선을 배울래? 경학을 배울래?”하고
물으셨습니다. 나이도 젊고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던 나는 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스님은 “참선을 하려면 만
공스님 회상으로 가고 경학을 배우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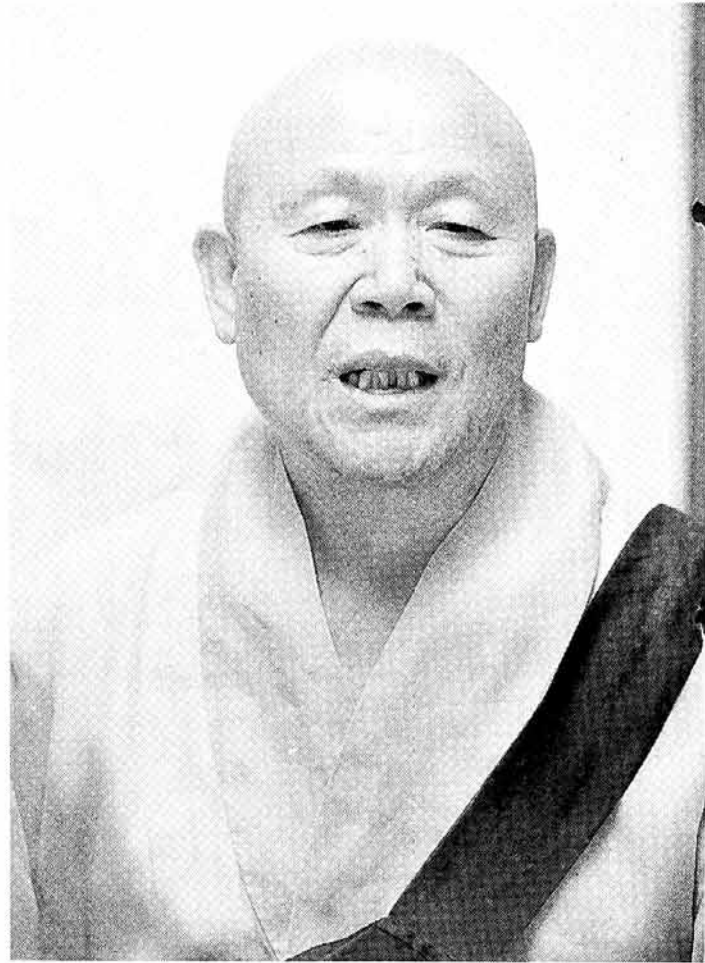
한암스님 회상으로 가는데 좋다”고 하시
면서 한암스님이 계시던 오대산 상원사
로 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당시 상원사에는 강원3본사인 월정사
유점사 건봉사에서 추천한 스님들을 모
아 공부시키는 승려수련소가 있었고 한
암스님은 선교를 겸비하신 분으로 명망
을 떨치고 계셨습니다. 또한 상원사 주지
이던 탄허스님도 한암스님의 제자로 경
학에 밝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상원사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구경할수 없는 목탄기차를 타
고 가는데 군대군대 내려서 승객이 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기차였지요. 월정사
에 당도하니 마침 상원사에서 불일이 있
어 내려온 스님이 있어 길안내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원사에 가니 식량이 부
족해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해요. 성전암

- 27년 경북 영천시
· 41년 파계사에서 고승스님을
은사로 득도
· 5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0년 월정사주지
· 72년 파계사주지
· 81년 학교법인 농인학원 이사장
· 90년~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거울은 뒤든지 그대로 비춥니다
대상이 물러가면 텅 빌뿐
자기주장이나 흔적이 없습니다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을 떠나올 때 은사스님께서 “상원사에서
공부를 못다하고 도중하차하면 사제의
연을 끊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조
금도 물러서지 않았더니 결국 공양주 소
임을 맡는 조건으로 입암이 허락되었지
요. 은사스님이 한암스님의 제자라는 사
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공양주지 일꾼을 포함해서 1백여
명이 넘는 대중들의 밥을 해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8남매
중 막내였던 나는 출가하기전까지만 해

있었습니다.
한암스님은 친견하는 자체만으로도 절
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스님의 청
백기풍은 철저했지요. 전쟁과중을 틈타
천도재를 지내러 오는 신도들이 있어 살
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참선해
서 깨우치지 못하면 다 빛이다”고 하시
면서 “시주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특히 발심(發心)을 주장하시며
발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철저해야한다
고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발심이 되지 않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
이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참선과 함께 경학과 영분
기도도 중시하는등 통불교적 면모도 보
이셨습니다. 70세가 넘는 노장이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나면 꽃꽂이 서서 대중들과
함께 관음기도를 무시간씩 했습니다. “말
세 생생은 근기가 약해서 참선만으로 제
도할수 없다”고 늘 강조하셨던 스님은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블로화정’ 특허

대구 여러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블로
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블
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시연스님(대구여러한방병원 원
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
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블로화정’
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
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블
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
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
섰다. 여러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블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김창수: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여러한방원 시연스님 ‘블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식품을 운영하
는 블로화정(不老化精)
은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블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호제이다.
스님은 “블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
함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한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